5·18 조사 내용도 모르는데…시민 의견 듣겠다니 '어불성설'

진상조사위, 최종결과 보고서 공개 않고 국민의견 수렴 나서
수렴 기간 내달 31일로 연장…광주시 "집담회 등 계속할 것"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최종결과 보고서(초안)를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한술 더 떠 각 기관·단체에 최종보고서 공개 예정일보다 앞서 의견 제출을 마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 6개 기관에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중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종합보고서에 수록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은 3월 10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광주시 5·18민주과는 지난 16일 광주 지역 26개 기관 및 단체에게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배포했다.

문제는 진상조사위가 오는 29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무엇을 보고 의견을 내란 말이냐"며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에 조사결과 보고서(초안)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본부(오월대책위) 또한 22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위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오월대책위는 "진상조사위와 광주시는 진상규명조사보고서 등 구체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조사보고서(초안)의 즉각 공개와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과거 광주 보고회 당시 약속했던 일정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광주에서 네 차례 조사결과 보고회를 열었던만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일찍부터 의견수렴을 시작해도 되겠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기간이나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터라 진상조사위 자체 판단에 따라 2주 가량 일찍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선태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당초 1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 의견수렴 마감일자를 3월 10일로 정했으나, 반발이 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며 "대신에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기간까지 고려하면 3월 말이 한계이며, 더 이상 의견 수렴 기간을 늦출 순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진상조사위 측이 미처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오월 관련 단체들에게도 의견수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보냈던 것이며, 사실상 '1차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1차 마감일을 29일로 정한 것인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1차 의견수렴 이후에도 관계 단체들을 모아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조사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최종 국가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게 최종결과 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25일까지 비…기온도 낮아

환절기 한반도에 '북고남저' 기압 배치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에 25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까지 광주·전남에 5~30㎜의 비가 내리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24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2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북쪽에 시베리아 고기압과 대등한 수준으로 세력이 커졌고, 두 기압이 교차하는 중간 지점에 한반도가 걸치면서 연일 비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북고남저의 기압계 배치가 이뤄지면서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연속해서 통과해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북고남저의 기압계가 유지돼 비를 뿌리다가 차츰 남쪽의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비가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아침최저기온은 4~8도로 평년(영하 3.1~1.6도)을 웃돌다가, 낮최고기온은 6~8도에 그쳐 평년(8.9~11.9)보다 낮을 전망이다.

23일은 아침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7~10도로 평년(아침최저기온 영하 2.5~2.0도, 낮최고기온 9.1~12.0)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에는 아침최저기온이 0~3도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쪽 저기압의 영향 정도에 따라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44주년 5·18' 표어·슬로건 공모

행사위, 22~29일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쓰일 표어·슬로건을 공모한다.

공모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표어는 한글 문구 20자 이내의 간결한 구호형태로 2024년 현재의 5·18민중항쟁 의미를 담아내면 된다.

표어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담는 표현이나 현재 진행형인 5월, 시대와 세대를 포괄하는 오월정신 표현, 오월을 이어나갈 당사자들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는 표현 등을 포함해야 한다.

1명당 최대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슬로건과 해설 내용을 담아 구글 폼(https://forms.gle/ADcQWBh6fG8vmL4cA)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3월 15일 이후 행사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되며, 당선작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작 3명에게는 각각 20만원씩을 시상한다.

선정된 표어는 제44주년 5·18기념행사 공식 행사와 포스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44주년 5·18 행사위는 오는 3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비 오는 정월대보름 '고싸움 놀이' 연기

광주 남구, 내달 1~3일로

광주시 남구는 '제41회 고싸움놀이 축제'를 비 때문에 3월 1~3일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남구는 이달 23일부터 25일 고싸움놀이 축제를 계획했으나 이 기간 비가 예고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축제를 내달로 연기했다.

올해 주제는 '고싸움놀이, 이어온 천년 이어갈 천년'으로 2박 3일간 다채롭게 채워질 예정이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경연대회가 열리며 광산농악, 마임쇼, 달집태우기, 고싸움놀이 시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양상블 련, 놀이패 신명의 강강술래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날인 3일에는 밀양백중놀이등이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시교육청, 사학비리 제보 포상금 첫 지급

'유령직원 인건비 제보' 교사에 소송비 등 1천만원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및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을 신고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에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유령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2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위원회는 A교사에게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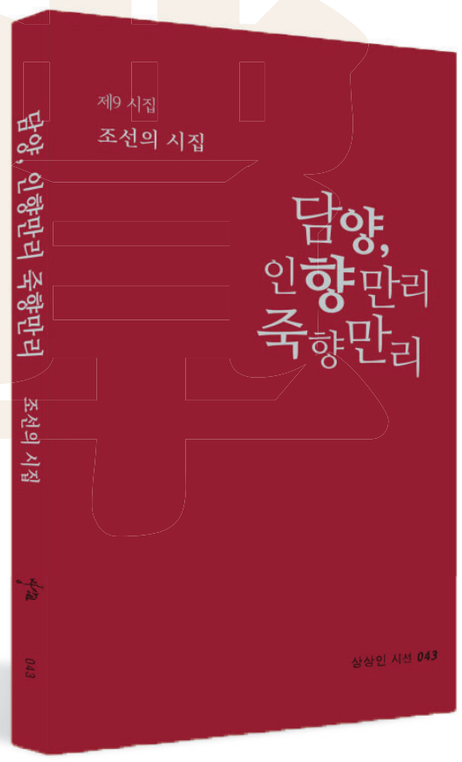
또 B교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고발한 이후 고소·고발을 당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교육청이 지급한 1000만원은 올해 편성된 공익제보자 포상금 전액이어서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포상금 지급이 교육청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제보자에게 지원할 포상금과 구조금 예산을 1차 추경에 시급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